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
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방안
2013년산 마늘 수급안정 대책 확정

거시경제 동향

201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

기획정보

기후변화 영향과 국제적 대응 동향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
해외 농정 이슈: EU, 차기 CAP 개혁안 합의 등

동향 분석 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농정 이슈_1

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방안

※ 본 자료는 2013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한우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방안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

□ 최근 가격아락 원인

-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해 공급물량은 대폭 증가한 반면, 경기위축 등으로 한우에 대한 소비 수요가 뒤따르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

※ 사육마리수: ('02) 141만 마리 → ('05) 202 → ('08) 243 → ('10) 292 → ('11) 295 → ('12) 306

※ 출하물량: ('10) 603천 마리 → ('11) 720 → ('12) 843

※ 1인당 연간 소비량: ('05) 6.7kg → ('10) 8.8 → ('11) 10.2 → ('12) 9.7

- '13년 수입량은 '12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수입량 증가가 최근의 가격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.

□ 개요

- [장기적] 생산 조정을 통하여 근본적인 수급 균형
- [중기적]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해 산지·소비자가격 연동성 제고,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수급조절과 관측기능 강화
- [단기적]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소비 촉진, 직거래 확대 등 중점 추진
- 친환경적·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('13.9월까지)

□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방안

1) 생산 조정

- [암소 추가감축 검토] 감축 필요성, 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가, 생산자단체와 협의·결정

※ 30천 두 감축 시 약 90억 원, 50천 두 감축 시 150억 원(축발기금) 소요

2) 소비 촉진

○ [한우고기 할인판매 확대]

- (기존사업 확대) 농협 및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**할인행사의 판매 규모 확대**(농협은 자체자금 활용)
- (신규수요 창출) **기업 단체급식 시 수입육이 국산으로 대체**될 수 있도록 **차액 일부 지원** 검토(자조금 활용)
 - ※ '12년 단체급식 수입산 쇠고기 사용량(농협 추정): 46천 톤(380천 두 분량)
- 육포, 조미료 등 육가공 활성화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확대
 - ※ 생산자 주도의 불우이웃 돕기행사 등 소비확대 방안도 검토

○ [암소 노폐물 부산물 폐기 지원] 암소 노폐물(예시: 도체중 178kg 이하)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시장격리(랜더링) 추진(자조금 활용)

- ※ 추진방법(안):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일정 월령 이상된 부산물(뼈 등)을 시장 격리하는 방안 검토

○ [한우 자가소비(공동구매) 지원]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한마리를 공동구매 할 경우 부대비용(도축비 등) 지원 방안 검토

○ [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] ('12) 1,284톤(육우 7.4천두 분) → ('13) 1,544(한우 686(4.6천두 분), 육우 858(5천두 분))

3)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

○ 생산자-유통업체-농식품부 합의(7.26일) 후속조치

- **유통업체 의무휴무기간** 중 농업인단체가 **농산물 직거래를 실시**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**시설 일부 개방**
- 농축산물(한우 등) 생산농가를 위한 **특판행사 적극 실시**
- 농업인단체가 자사매장 내에서 **로컬푸드직매장 운영** 협조, **직매장 운영경비 일부 정부가 지원**

○ 기타 직거래 확대

-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신규로 **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 지원**

- 로컬푸드형 직매장('13년 신규 30개소) 설치 지원 시 **축산물 판매 시설도 포함해 지원**, 지자체 및 공공기관,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**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 확대**('12: 151개소 → '13: 170)

○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

- 「안심축산(농협)」을 도축·가공(분할, 포장)·판매를 전담하는 **협동조합형 패커(Packer)로 육성**하여 **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**
 - ※ 한우 시장점유율: ('12) 10.9% → ('13.7월 말) 13 → ('17년 목표) 37
- **농협계통 정육점(가맹점) 및 정육식당(가맹점·축협직영점) 확대**
 - ※ 정육점/정육식당: ('12) 300/301 → ('13.7월 말) 344/321 → ('17년 목표) 1,000/600
- 소비자단체 통한 소비지 유통실태(소매·음식점 판매가격 등) 조사·공표

○ 민·관 공동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활성화

- 수급조절협의회(총 15인)에서 **매 분기별 수급상황 분석**하여 수급상황별 **정부 및 생산자의 대응수단 구체화**
- **한우우 관측모형 개선 및 관측시기 단축**(현행: 매분기 → 개선: 매월), 농가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(리후렛, 문자메시지 등)를 통해 미래 **수급예측 기능 강화**

4)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

- 일률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갈비에 대하여 구이용, 찜·탕용으로 구분, 찜·탕용은 등급표시에서 제외 추진(식약처 협조, 표시기준 고시 개정)
 - ※ 갈비판매 활성화로 2~3등급 도매가격 상승과 암소 도매가격 하락 방지 효과
-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*을 위해 발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**, '13년 동계작물에 대하여 '14년부터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(하반기)
 - ※ 재배면적: ('12) 27만ha → ('13) 35 → ('14) 37
-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
 - ※ 보증한도액: 1억 원 → 2억 원

주요 농정 이슈_2

2013년산 마늘 수급안정 대책 확정

※ 본 자료는 2013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마늘 공급과잉물량 86천 톤 중 49천 톤 시장격리, 잔량 37천 톤은 소비확대 등 추진 - '13년산 마늘 수급안정 대책 발표 -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배경

- '13년산 마늘의 생산량이 급증하여 마늘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「마늘 수급점검회의」 및 「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」 긴급 개최·심의를 거쳐 '13년산 마늘 수급안정 대책 확정

※ 마늘 수급점검회의: 농협 aT·KREI 등 관계기관과 마늘산업연합회, 마늘 주산지 농협장, 마늘가공협회장 등 참석('13.7.31.)

□ 주요 내용

- [13년 '마늘 생산량] 재배면적 증가, 생육기 작황호조 등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**412천 톤**(통계청, 7.25)

※ 재배면적: 29,352ha (전년(28,278)대비 3.8%↑, 평년(25,928)대비 12.2%↑)
 ※ 생산단수: 1,405kg/10a (전년(1,199)대비 17.2%↑, 평년(1,253)대비 12.1%↑)
 ※ 생산량: 412천 톤 (전년(339)대비 21.5%↑, 평년(325)대비 26.8%↑)

- [수급전망] 평년 수요량 대비 **공급 가능량 86천 톤 많을 전망**, 마늘 산지가격 및 도·소매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하락세

※ 수요량 및 민간수입량은 평년 기준, 생산량은 통계청 통계 기준
 ※ 산지공판장(창녕) 가격: 개장일(7.12) 1,800원/kg대 → **최근 1,600원/kg대** (전년 동기대비 3,300원)

<2013년 마늘 수요량 및 공급량>

수요량	공급량				과부족
	소계	생산량	민간수입량	TRQ 물량	
387천 톤	473천 톤	412	47	14	86천 톤↑

- [대책 추진]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**정부 구매비축을 9.2천 톤 → 15천 톤 확대**하는 한편, 공급과잉물량 86천 톤 중 **49천 톤(57%)을 시장에서 확실히 격리**하고 **잔량은 소비확대** 등으로 해소

- (시장격리: 49천 톤)

- 시장접근물량(TRQ) 14천 톤 전량 건조마늘로 도입·보관
- 정부 구매비축물량을 당초 9.2천 톤 → 5천 톤으로 확대 보관
- 농협 계약재배 확대물량 10천 톤 및 자체수매 물량 10천 톤 보관

- (소비확대 등 민간수급조절 유도: 37천 톤)

- 자조금 등을 통한 판촉행사, TV 홍보 등을 통해 소비확대(20천 톤)
-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수입(5년평년 47천 톤) 축소 유도(30천 톤 수준)
 ※ 연도별 민간 수입량: ('08년산) 37천 톤 → ('09) 23 → ('10) 76 → ('11) 78 → ('12) 28

<2013년 마늘 수급 전망>

대상 물량	시장격리				자조금단체 등	수입업체
	소계	TRQ	정부수매	농협수매	소비확대	수입량 감소
86천 톤	49	14	15	20	20	17

- 공급과잉물량 86천 톤 중 49천 톤(57%)은 최소한 금년 말까지 시장에서 확실히 격리, 잔량 37천 톤(43%)은 소비확대 등을 통해 해소

- TRQ·정부수매 등 시장격리 물량은 시장가격, 수확시기 등을 감안하여 '14년 이후 '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방출시기 결정
- 또한, 현장의 요구 수렴해 농가에 보관 중인 마늘을 자체 수매하는 농협에 대해 보관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

- 생산자-유통업체-농식품부간 합의(7.26일)한 결과에 따라 수급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(8.2일) 처음으로 가동

- 한우, 마늘, 감자 등 품목에 대한 특판전 개최 등 소비확대 및 유통업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논의 예정

거시경제 동향

201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

※ 본 자료는 2013년 8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□ 전반적 동향

○ **[소비자물가지수]** 107.4(2010년=100), **전월대비 0.2% 상승**

※ 전년 동월대비 1.4% ↑

<연도별 7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(2010=100, %)>

구 분	연도별 6월 동향					최근의 월별 동향						
	2009	2010	2011	2012	2013	'13.1	2	3	4	5	6	7
지 수	97.3	99.8	104.3	105.9	107.4	107.3	107.6	107.4	107.3	107.3	107.2	107.4
전 월 비	0.4	0.2	0.5	-0.2	0.2	0.6	0.3	-0.2	-0.1	0.0	-0.1	0.2
전년동월비	1.6	2.5	4.5	1.5	1.4	1.5	1.4	1.3	1.2	1.0	1.0	1.4
전년동기비	3.1	2.8	4.0	2.5	1.3	1.5	1.5	1.4	1.3	1.3	1.3	1.3

○ **[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]** 106.5, **전월대비 0.1% 상승**

※ 전년 동월대비 1.5% ↑

○ **[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]** 105.5, **전월과 동일**

※ 전년 동월대비 1.3% ↑

○ **[생활물가지수]** 106.2, **전월대비 0.1% 상승**

※ 전년 동월대비 0.9% ↑

- (식품) 108.6, 전월대비 0.4% 상승(전년 동월대비 0.9% ↑)

- (식품이외) 105.1, 전월대비 0.1% 하락(전년 동월대비 0.7% ↑)

○ **[신선식품지수]** 106.6, **전월대비 0.2% 상승**

※ 전년 동월대비 0.4% ↑

- (신선어개) 111.3, 전월대비 0.8% 하락(전년 동월대비 0.6% ↑)

- (신선채소) **90.4, 전월대비 3.3% 상승**(전년 동월대비 3.0% ↑)

- (신선과실) **119.7, 전월대비 0.8% 하락**(전년 동월대비 0.8% ↓)

- (기타신선식품) 101.8, 전월대비 6.3% 하락(전년 동월대비 9.0% ↓)

□ 농축수산물 물가동향

○ **[농축수산물 물가지수]** 110.4, **전월대비 1.1% 상승**

※ 전년 동월대비 0.4% ↑

- (농산물) 112.1,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 동월대비 0.2% ↑)

- (축산물) 105.2, 전월대비 4.0% 상승(전년 동월대비 0.4% ↓)

- (수산물) 113.8, 전월대비 0.4% 하락(전년 동월대비 2.2% ↑)

<품목성질별 동향(2010=100, %)>

구 분	품목수	가중치	2012.7월				2013.7월			
		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6월)	지수	전월비	전년 동월비	전년 동기비 (1~6월)
총 지 수	481	1000.0	105.9	-0.2	1.5	2.5	107.4	0.2	1.4	1.3
농축수산물	71	77.6	110.0	-1.6	1.5	3.6	110.4	1.1	0.4	0.3
농 산 물	51	43.5	111.9	-2.2	7.0	9.7	112.1	0.2	0.2	2.1
축 산 물	6	22.1	105.6	-0.9	-8.8	-7.7	105.2	4.0	-0.4	-4.8
수 산 물	14	12.0	111.4	-0.4	2.7	3.2	113.8	-0.4	2.2	1.7

<2013년 7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>

단위: %

구 분	전월대비	전년 동월대비
상승 품목	돼지고기(7.8), 시금치(97.6), 상추(73.9), 오이(27.7), 양상추(54.0)	쌀(6.6), 오이(65.0), 바나나(30.2), 달걀(14.3), 호박(58.7), 수박(13.7)
하락 품목	양파(-20.4), 감자(-23.1), 무(-13.4), 참외(-12.8), 바나나(-8.2), 파(-8.0)	고춧가루(-19.3), 돼지고기(-4.9), 고구마(-31.6), 파(-27.4), 감자(-30.0)

기획정보

기후변화 영향과 국제적 대응 동향

※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.

□ 최근 기후변화 동향

- 세계적으로 **기후변화*로 인한 다양한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급증**하는 가운데, **물부족과 홍수, 동식물 멸종, 식량 부족문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** 발생

※ 여러 원인들(자연적, 인위적)에 의하여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이며 특정지역의 (혹은 지구전체) 기상이 평균적인 상태에서 벗어남이 충분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함. 온실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류되며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

- 갈수록 심해지는 온난화와 기후이변, 환경파괴 등으로 **식량부족 현상**이 나타나 국가의 생존이 걸린 **식량안보 문제**로 인식되는 상황

- 지구 온난화로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**폭우와 태풍, 폭염, 한파·폭설 등 기상이변이 속출**하면서 **작황 부진에 따른 식량난 가중**

※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인한 곡물 수급 차질은 곡물가격 파동으로 이어져 '08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'애그플레이션' 발생, 애그플레이션(agflation)은 농업(agriculture)과 인플레이션(Inflation)의 합성어로,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

- IPCC 제4차 보고서(2007)에 따르면, **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.74℃(육지 0.9℃, 해양 0.6℃) 상승**, 기상청*에 따르면, **우리나라는 1.7℃ 상승(세계 평균의 2배 상승)해 급격한 기후변화** 현상이 나타남.

※ 관측자료는 지난 100년간(1912~2008년) 6개 관측지점(서울, 인천, 광주, 대구, 목포, 부산)의 자료 이용

<한반도 및 전 지구 기온 상승의 현황 및 전망>

구 분	과거~현재	2000년 이후 기온 추가상승 전망			자료출처
		2020년대	2050년대	2100년대	
한반도(A1B)	1.7℃ (1912~2008)	0.9℃ (2016~2020)	2.0℃ (2046~2050)	4.2℃ (2096~2100)	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
전지구(A1B)	0.7℃ (1906~2005)	0.7℃ (2011~2030)	1.8℃ (2046~2065)	2.7℃ (2080~2099)	IPCC 제4차 보고서

- 한반도는 **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** 있으며, 이로 인한 강수량 변동 심화,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 발생

※ 한국이 전 세계 평균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('13년 「아시아 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포럼」)

-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면 **식량 생산량이 감소**할 것으로 예상

※ 한국의 이상고온 현상이 과거 30년간(1973~2010년) 평균기온 분석한 결과 이상 고온은 '80년대 연평균 0.2회, '00년대 1회로 5배 증가(국립농업과학원)

<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량 감소 전망치>

단위: kg/10a

평 년	2℃		3℃		4℃		5℃	
	수량	평년대비	수량	평년대비	수량	평년대비	수량	평년대비
539	515	95.5%	495	91.8%	486	90.1%	459	85.1%

자료: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, 「기후변화대응 정책요약집」, 2012

-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식량뿐만 아니라 곡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불안정한 식량 수급으로 인한 물가상승 예상

- 아프리카는 환경파괴로 인해 농업GDP의 4~12%가 감소하고, 만성 기아와 분쟁으로 이어짐.

- 약한 정부와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강수량 부족으로 사막화가 심화 되고 있는 소말리아, 에티오피아, 케냐 등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

□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급부상

- '07년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**전 세계 주요기업 CEO의 38%가 기후변화 방지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**('07.1.25)

-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%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로인으로 지목

- **북미 식품·농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상이변이 68%로 압도적 1위**('13년 농산업 종사자 조사결과)

- 이 조사 결과는 식품·농업 관련 대기업들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줌.

- 기후조건에 민감한 농업은 물론, 도시화·산업화·정보화로 복잡해진 사회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는 **새로운 국가적 재난 유형으로 발전**

- 최근 들어 **이상기온 현상이 빈발**하면서 **농수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**, **곡물가격**은 향후 재배지역의 **날씨 변화 요인에 민감**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며 날씨에 따른 **가격 등락폭이 커질** 것으로 전망

□ 주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심각성 경고

- (세계은행, 기후변화 보고서, '13.6.19) 이상 고온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로 **2030~2040년까지 현재와 같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**, 20년 안에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**농경지(40~80% 가량 감소)가 말라버릴 수 있다**고 경고
- (스위스 DARA*, '12.9.29) 2030년까지 기후변화와 탄소분쟁으로 인해 1억 명 이상이 사망, **전 세계 GDP의 11%에 달하는 손실을 야기**해 가난한 나라들에선 가뭄, 물 부족, 흉작, 빈곤,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
 ※ Development Assistance Research Associates, 20개의 개발도상국과 협약을 맺고 있는 Climate Vulnerable Forum의 의뢰를 받아 '10~'30년 동안 184개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보고서 발간.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1조 2,000억 달러 혹은 잠재 생산량의 1.6%,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, 이 비율은 '30년 두 배
- (영국 일간 가디언) 최근 레딩대학교 발표자료 인용해 **지구 온난화 여파로 20년 내 옥수수 수확량 12% 이상 감소**,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소맥, 대두의 수확량도 '50년까지 30% 이상 감소 전망
- (유엔, 리처드 솔라틴) 20년 전과 지금이 다른 점은 **기후리스크가 심한 지역**에 사는 인구가 훨씬 늘어났으며, 이 지역 사람들이 **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**은 물론 **물가인상 쇼크에 직면**하게 될 것
- (UN 기후보고서) **2001~2010년 기간이 기상 측정 이래 가장 더운 10년**이며, 대형 자연재해도 이 시기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**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문제가 시급**함을 경고

□ 기상이변과 농업의 피해

- **이상기온이 일상화**되면서 **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2~3년 주기로** 빨라지고 있어 **공급이 줄어드는 반면, 중국·인도 등 신흥국의 인구 증가로 전체 소비량은 크게 증가**
- 국제금융센터·미국 농무부('13.2.28), 세계적인 가뭄 등 **이상기후의 영향**으로 지난 해 **세계 곡물 생산량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**
 - 미국,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 가뭄을 비롯한 **기후 여건이 악화**되어 **곡물 생산량 부진**

※ 작년 곡물 생산량(22억4,360만t)이 세계수요(22억8,500만t)에 못 미친 데다, 세계곡물재고율(18.6%)도 '07년(17.8%) 이후 가장 낮아 '곡물파동(food Crisis)' 재연 우려, 작년 전 세계의 쌀, 밀(소맥), 옥수수, 보리, 귀리, 수수 등의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(23억1,490억t) 3.1% ↓

- 기후변화가 **농업에 미칠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잦은 기상이변**으로 인한 **농산물 수급의 불안정**

-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농지가 침수, 폭염이나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현상 발생

- '10년 6월, 폭우로 인해 중국 중 남부 지역 94만 6,500ha의 농지가 침수되었으며, 채소와 벼의 생산량이 30% 이상 감소
- '10년 세계적 밀 재배지인 러시아 서부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밀의 공급량이 전년대비 약 27% 감소

- 극심한 기후변화가 주요 농업지역에 타격을 입히면, **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**으로 애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**소비자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문제 초래**

- 농수산물 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바로 기후이며, 수확 시기, 수확량 모두 기후에 달려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하면 바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

- 러시아의 밀 수확량이 줄어들자 밀 가격이 급등, 급기야 곡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세계 밀 가격까지 급등('10년)
- 각국이 자국의 수급 안정을 위해 피해를 입은 농산물 수출을 제한 중단하면서 식량안보 문제가 새롭게 대두
 ※ 우크라이나는 보리 수출을 '09년 대비 50% 가량 제한, 파키스탄은 양파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해 '10년 1월 양파 수출 중단

- 기후변화는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 농업기반 악화,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, 재배기간 및 재배면적 변화,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 발생 등 **기존의 안정적 농업생산에 위기 초래**

- 우리나라, 벼·보리 등 주곡의 재배지역 및 수확시기 변하고 사과·감·복숭아 등의 주산지도 북상
- 연간 세계 식량의 40%가 해충, 식물 질병, 잡초 피해로 사라짐(디나르 고드레지, 2001).

□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동향

-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,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

<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>

국 가	대응 정책
미 국	• '50년까지 '90년 대비 CO2 80% 감축, 농업분야 탄소절감을 위해 농부문의 역할 강화, 기후변화 영향 파악 및 행동계획 수립
E U	• 국제적 공조 노력 강화, 어업회복력 복구 • 의사결정기구 설립, 배출권제도 실시
영 국	• 탄소감축라벨, 기후변화부담금 • 탄소감축제도, 탄소예산안 실시
뉴질랜드	• 이산화탄소 배출 중립국 지위 획득을 위하여 산림 및 농업분야 배출권 거래제 시행
일 본	• '20년까지 '90년 대비 CO2 20% 감축 목표,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에너지 절감 정책 추진
중 국	•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, 적응능력 강화 • 대응기구와 관련제도 수립
우리나라	• 온실가스 감축 위해 '99년~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 종합대책 수립·시행, '05년부터 3차 종합대책 시행

-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력

<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>

구 분	내 용
미 국	⇒ • 오바마 행정부, 기후변화를 미국의 국제리더십 회복의 단초로 판단하여 농업분야는 농무부가 직접 정책과제를 총괄 • 미국 기후변화 액션플랜 발표, 건물('13.6월), 인프라시설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,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27억 달러('14) 배정,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대 적용
영 국	⇒ • '05년 「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골격」 수립하고, 농업 분야의 물 부족, 병해충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정책 추진
일 본	⇒ • 농림수산성, '08년 「지구온난화 대책 종합전략」 수립, 온난화 대비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에 주력
네덜란드	⇒ •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'11년까지 5,800만 유로 투입
우리나라	⇒ •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대응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

- 최근 유럽연합(EU)이 주축이 돼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안보 의제화 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주요한 국제적 어젠다로 부상

- ('07년)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기후변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특별회의 개최, ('09년) 유엔 총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안 채택, ('11년)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다시 개최돼 의장 성명 채택

- 세계은행,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 ('11년) 26억 달러 → ('12년) 46억 달러로 확대, 향후 71억 달러 까지 늘려나갈 계획

※ 참고문헌

- 기후변화홍보포털_www.gihoo.or.kr
- 기후변화정보센터_www.climate.go.kr
- 농촌진흥청_www.rda.go.kr
-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_www.ri.ekr.or.kr
- 환경부_www.me.go.kr
- 농촌진흥청 「세계의 농업·농촌 이슈와 동향 제24호」 “북미 농식품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, 기상이변(IATP, '13.4)”(2013)
- 농촌진흥청 「세계의 농업·농촌 이슈와 동향 제22호」 “세계 168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막화 위기”(2013)
- 농촌진흥청 「세계의 농업·농촌 이슈와 동향 제23호」 “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할 미래 식단”(2013)
-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「기후변화대응 정책요약집」 (2012.7.6)
- GS&J인스티튜트_Lecture 17 「기후변화와 농업 및 농촌의 역할」 (2012.4.4)
-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과 환경(2010.12 / No. 109)
- 경향신문 보도자료 「‘이상고온 현상’ 30년간 5배 늘었다」 (2013.8.1)
- 아시아투데이 보도자료 「지구의 미래가 불안하다」 (2013.7.25)
- OBS NEWS 보도자료 「뜨거워 지는 지구…기후 대책 절실」 (2013.7.5)
- 문화일보 보도자료 「“지구온난화 현상 계속면 20년내 동남아 일부 잠겨”」 (2013.6.20)
-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「뜨거워진 지구 ‘애그플레이션 위험’이 배회한다」 (2013.6.7)
-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「식탁 위협하는 이상기온…장보기 무섭다」 (2013.6.7)
- 인데일리 보도자료 「방현정의 미래예측,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?」 (2013.4.26)
- 한겨레 보도자료 「지구온난화, 기회와 과제」 (2012.4.26)
-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 「기후변화와 농업 위기관리」 (2012.4.6)
- 연합뉴스 보도자료 「“한국, 기후변화 영향 특히 많이 받아”<국제포럼>」 (2013.3.18)
-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「세계 곡물 생산 감소폭 10년 내 최대…이상기후 영향 ‘곡물파동’ 우려」 (2013.2.28)
- 서울경제 보도자료 「기후안보에 주목하자」 (2013.3.20)

농정 여론 동향
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※ 본 자료는 7월 29일~8월 2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농산물값 들썩…싸고 나면 뒀는 ‘밥상물가’ 비상

- 한국은행, 7.31일, ‘물가보고서(2013년 7월)’, **기상여건 악화**로 인한 **농산물 가격 급등**과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린 **원·달러 환율 상승**으로 물가 상승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. **‘13년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작년 동기대비 2.1% 상승해 상반기(1.3%)보다 상승 폭이 커질*** 전망. 또한 안전행정부·통계청, 7.30일, ‘6월 주요 서민생활물가 공동 조사 발표, 올 들어 **상반기 소비자물가는 1.3% 상승**하는 데 그쳤지만 **서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물가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른** 것으로 집계. **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신선식품****. 특히 구이용 고기와 함께 즐겨 먹는 채소의 경우 최근 **중부권에 이어진 집중 호우**로 산지 피해를 입어 **출하량이 급감**한 탓에 시세가 두 배 이상. **배추나 당근 등 일부 계절 채소는 공급 축소** 전망. ‘밥상물가’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이미 **1%대의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기 어려운 형편**. 또한 하반기 예고된 **공공요금 인상**, 원유(原乳)가격을 매년 생산비에 연동해 조정하는 **‘원유가격 연동제’** 등이 더해지며 **우유를 원료로 한 과자, 빵, 아이스크림 등의 도미노 가격 인상 불가피**할 전망이어서 **하반기 소비자물가 부담 가중**
 ※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대비 1.3%↑인 반면, 하반기에는 2.1%↑ 전망
 ※※ 농수산물유통공사, 7.26일 현재 배추 1포기 값은 한 달 전 2,754원 → 3,075원, 같은 기간 시금치 1kg 3,989원 → 1만506원, 상추 100g 670원 → 1,623원, 애호박 1개 1,197원 → 1,822원, 수박 1통 1만5,300원 → 2만168원으로 각각 상승
 자료 : 동아일보·서울경제·파이낸셜뉴스(2013.7.29) / 이투데이뉴스(2013.7.30) / SBSNBC(2013.7.31) / 국민일보·한국경제·한국일보(2013.8.1)

□ 양파값 ‘심각’ 벗어나 ‘안정대’ 진입

- 양파 가격의 위기 발령 단계가 **‘심각’에서 벗어나 ‘안정대’ 진입**. 농식품부, 7.26일,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, 양파 도매가격이 수급조절 매뉴얼상 가격안정대에 진입함에 따라 **경보 발령 유보**상황

정상상황으로 조정. **7월 평균 도매가격은 24일까지 811원** 기록해 안정대*. 5월 하순 이후 만생종 양파가 본격 출하된 데다 정부가 양파 수입 물량을 늘렸기 때문

- ※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르면 7월 도매가격 기준 양파의 가격안정대는 1kg당 648~825원
- ※ 지난달 제2차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당시 도매가격이 심각단계에 해당했으나, 당시 가격이 하락추세이고 위기경보를 발령할 경우 시장에 불안심리 확산 가능성 및 생산자단체에서 출하확대를 통해 가격을 조기에 안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잠정 유보, 7월 중 수급상황을 재점검기로 한 바 있음.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29) / 원예산업신문(2013.7.31)

□ 미국, 감귤 살균제 기준 완화…수출 확대 기대

- **미국 환경보호청(EPA)**, 7.24일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살균제 **‘만코제브’*에 대한 잔류기준을 불검출 → 1kg당 10mg** 설정함에 따라 **국산 감귤의 대미 수출 증가 기대**.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, ‘12.7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EPA에 <만코제브>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하고 기준 설정 요청
 ※ 감귤의 검은점무늬병(썩음병의 일종)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
 자료 : 농민신문(2013.7.29)

□ 산지 “가락시장 양파시세 표기 개선해야”

- 양파값이 최근 석달 동안 요동치면서 **가락시장의 양파 시세 표기를 놓고 산지 불만** 고조. **(4.25일) 1kg(상품)당 2,330원으로 전년대비(787원) 거의 3배 상승 → (5.25일) 1,028원**, 반토막 하락 → **(6.21일) 900원대 → (7.24일) 810원**으로 지난해(959원)에 크게 못 미치며, 양파는 **포장 단위와 선별 여부·출하처 등에 따라 시장 경락값이 크게 달라**지는 데도, **가락시장의 경우 1kg 단위로 환산한 시세만을 표기**하고 있어 **거래가격을 놓고 농가들 혼선**. 양파의 경우 20kg들이 한망씩 포장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, 밭에서 1차선별만 거친 원물 망포장품과 지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에서 흙을 털고 크기에 맞게 선별해 출하한 망포장품은 경락값이 한망 당 2,000~3,000원 이상 차이 발생하는 반면, **가락시장은 이런 선별 상태나 포장 단위와 상관없이 1kg당 얼마**

라는 식의 가격만을 외부에 발표하고 있어 농가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. **(지역농협 관계자)** 단기간 시세가 급등락하는 품목만이라도 시세 표기 정밀 요구 ↔ **(서울시농수산물공사측)** 양파만이 아니라 수박 등 다른 품목도 1kg으로 환산해 시세 표기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29)

□ 양봉 위축...꿀벌 공익적 가치 감소 우려

- 최근 7년간 **꿀벌이 26% 이상 줄 정도로 양봉산업이 위축**되면서 꿀벌이 담당하는 화분수정 등 **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감소** 우려. 농식품부에 따르면 ▲양봉 농가...**(‘11년) 1만9,300여명, (‘05년) 4만1,000여명 보다 53%가량 감소.** 이에 따라 같은 기간 ▲**사육군수**...208만9,000여군* → 153만1,000여군으로 **26.7% 감소.** 이 같은 상황은 낭충봉아부패병·등검은 말벌 등 병충해에다 주 밀원인 아카시아가 지속적으로 줄기 때문. ▲**꿀벌은 농업에 매우 중요한 자원**...곤충을 매개로 꽃가루 수정이 이뤄지는 작물이 전체의 1/3을 차지하는데 그 작업의 80%를 꿀벌이 담당, **꿀벌의 화분수정 유용성 6조 추산.**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**밀원 다양화** 및 멸종위기에 처한 **토종벌 보호 방안 마련** 절실

※ 군은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꿀벌 집단의 단위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29)

□ 대형마트 의무휴업 땀 시설을 농산물 직거래장터로

- 농식품부, 7.26일, ‘농산물 직거래 활성화’를 위한 간담회, 한농연·3대 유통업체, **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**에 업체 시설에서 **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** 열릴 전망. ▲합의내용...대형유통업체는 월 2회인 의무휴업일에 **농업인단체가 농산물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업체 시설 일부 개방.** 다만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자체 조례 형태로 돼 있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**지역별 여건 고려**해 추진. 이에 따라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변에 전통시장 등이 없는 매장에서 우선 실시될 전망. 관건은 4.24일 시행된 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러한 방안의 저촉 여부. 이와 관련

유통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논의. 또한 농업인 단체가 매장에서 **로컬푸드 직매장 운영**할 수 있도록 협조 방안 합의. 직매장이 설치될 경우, 농업인 단체에 매대설치비, 기자재 운영비, 임차비 등 **비용의 30% 농식품부 지원.**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와 농협유통 등은 **장마철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 대체품목 발굴해 특판 행사 개최**

자료 :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(2013.7.29) / 한국경제(2013.7.30) / 원예산업신문(2013.7.31) / 한국농어민신문(2013.8.1)

□ 농가 자가·공동발전기 지원 검토

- 농식품부, 전력수급 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되고 있는 가운데 **농업 분야에도 ▲정전 대응체계 구축**...비닐하우스나 축사 냉난방 시설의 전기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부족마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**농업 분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체계 구축**할 방침. 이에 따라 농업 에너지와 관련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상황별 에너지 수급 적정관리 매뉴얼 작성. 또한 ▲**위기 대응훈련 실시**...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시설하우스·저온저장고·축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대응훈련도 실시할 계획. 자가발전기의 경우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이를 설치한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, ▲**전기시설을 사용하는 농가에 자가발전기 구입비 지원**과 **대규모 농가 밀집지역에 공동발전기 설치 지원** 방안도 검토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29)

□ 쌀 등급표시제 변경 여전이 논란...고품질·친환경에 역행

- 농식품부, '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'(쌀 등급표시제)* 변경안 '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' 6월 말 입법예고
※ 쌀 등급표시를 5단계(1·2·3·4·5등급, 미검사) → 3단계(특·상·보통) 축소,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제(수·우·미·미검사)→ 임의제로 전환하는 내용
- 8.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**쌀 품질등급 표시제 간소화 법안**에 대해 **고품질·친환경 쌀 생산 정책에 역행**, 장기적으로 **쌀 농가 소득 감소, 소비자 불신 등을 초래**할 것이라는 지적 제기
- 이러한 현행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되자마자 **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산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제기**
- (농식품부)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쌀이 **까다로운 품질등급 검사를 피하고자 미검사로 처리하는 문제 해결** 위해 등급 간소화
- (한농연) 등급 간소화로 현재의 2등급 기준만 되도 특으로 분류됨으로써 **쌀 품질만 하향**시킬 뿐 **고품질·친환경쌀 생산을 부르는 농업정책에 역행**

[쌀전업농·소비자단체...표시제 강화돼야]

- 개정안은 **쌀산업 포기, 소비자의 알권리**와 **상품선택권을 무시**하는 것
- 현행제도에서 오히려 **'미검사' 항목을 삭제**함으로써 **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개선**할 필요

[RPC...현실적 어려움 호소]

- 쌀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이후 산지에서의 검사등급과 소비자 단속에서의 검사등급이 다르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**등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**하거나, **'미검사'로 표시**하는 **RPC 급증**
- 농지에 따라 미질의 차이가 있는데다 RPC에서는 여러 농가들의 쌀이 섞일 수밖에 없어 **쌀 등급을 완벽하게 표시하는 건 불가능**

[외국사례]

- **(일본)** 원료현미의 산지, 품종, 연산, 용량, 정미한 연월일, 판매자 이름 등 표시. 하지만 검사 때의 현미와 판매 때의 정미 사이에 품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품위(1~3등급)는 표시등급에서 제외
- **(대만)** 포장된 쌀을 판매할 경우 품명, 품질규격, 산지, 중량, 제조연월일, 보존기간, 공장명·전화번호·주소 등을, 쌀의 품질규격은 '대만 국가표준'의 기준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의무적 표시
- **(미국)** 곡물표시에 대해 거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, 다만 '미국연방 규정'에 따라 중량과 혼합비율에 관한 내용 포함

자료 : 농민신문(2013.7.29) / 한국농업신문(2013.7.30)

연구 지원 정보

해외 농정 이슈: EU, 차기 CAP 개혁안 합의 등

1. EU, 차기 CAP 개혁안 합의

□ 개요

- 지난 6월 25일 브뤼셀에서 EU회원국은 농업의 공익성·환경성과 직접지불제 형평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**"2014~2020년 공동농업정책(CAP) 개혁안"**의 대부분 항목에 대한 **합의점 도출**
 - (합의 내용) '연계된' 보조금, 젊은 농업인 의무추가지원, 환경부문 배정 최저 제2축 지불금 규모 결정 등
 - (결렬 내용) 외부적 수렴(회원국 간 직접지불금의 일부재분배), 직불제 상한선 설정, CAP 축간 자금 이동의 유연성, EU의 농촌개발 협조융자 비율 등

□ 합의안 주요 내용

- **[직접지불제 형평성 강화]** 직접지불금 소액 수혜 농가에 대한 **지불 규모**를 2019년까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1ha당 **평균 직접지불금의 60%이상으로 상향 조정**
- **[농업의 환경보전 역할 강화]** 농촌개발 **제2축 예산의 30%를 환경 대응 정책에 사용**
- **[공익적 가치 강화]** 지불금을 받기 위한 기준 설정
 - **작물 다양화, 영구초지유지, 생태중점지역 설정 등**
- **[직접지불금 비중 확대]** 현재 제1축 예산의 5% 미만에서 8%까지 증액 가능
 - ※ 현재 10% 미만인 국가는 13%까지 증액 가능
- **[신규청년농업인 육성]** 제1축 예산의 최대 2%를 4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지원
- **[수입 위기관리 강화]** 2011년 가격으로 40,000만 유로에 달하는 새로운 위기비축(Crisis Reserve)제도 도입

※ 자료: Weekly Agra News(2013.07.02)

2. EU, 일본과 FTA 체결 입장 발표

□ 개요

- **[대 일본 무역중요도]** EU에 있어 일본은 7위의 무역국이며,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의 무역상대국
- **[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]** EU회원국의 GDP는 0.6%~0.8% 증대, 고용창출은 40만 명 수준 전망
 - (무역) 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32.7%, 23.5% 증가

□ EU-일본 FTA 경위

- **2011.5월, EU-일본 정상회담**에서는 **FTA와 정치적인 합의 시작** 결정
 - 교섭 승인을 위해 4회에 걸친 논의
- **2013.4.15~19일**, 브뤼셀에서 **EU-일본 FTA** 관련 **교섭** 진행
 - 금년 **10월** 차회 **교섭 개최** 예정

□ FTA 교섭 검토 범위

- 일본과의 교섭에서 **EU측은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공공조달시장 개방**에 대하여 **언급**
 -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일본에 대하여 **철도 및 도시교통 등 공공조달의 시장개방**에 대한 **비관세장벽철폐 특정 로드맵 합의**
 - **비관세장벽의 철폐**는 **EU측의 철폐와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병렬적으로 진행**되도록 **제시**
 - 만약 **일본이 비관세장벽의 철폐**에 대하여 **양보하지 않을 경우 1년 후 교섭 중단** 허가 포함
 - ※ 또한 유럽에 있어서 민감한 분야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도 설치
- ※ 자료: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(2013.06.18.)

3. FAO, 2013-2014년 세계식량전망

□ FAO 식량시장보고 공표

- **[2013년 세계 식량 수입]** 수입액은 **1조 900억 달러 전망**, 작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**'11년 대비 13% ↓**
 - (2013년 세계 곡물 생산량) 역사상 최고치인 24억 6,000만 톤 전망, 시장 가격이 낮아져 곡물가격도 하락 가능성 예측
- **2013-2014년** 시장에 관한 **최신 지수**는 보다 **안정된 세계의 곡물수급 균형** 시사
 - **2012-2013년**에는 **경직된 상황**과 **높은 가격**으로 전환하였지만 양호한 생산 전망 및 세계의 재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**내년에는 시장이 진정** 되면서 **가격**도 약간 **누그러질** 전망
- **[2013년 곡물생산]** 전년대비 **6.5% ↑**

□ 세계 곡물 수요 증대

- **[2013-2014년 세계 곡물이용량]** **24억 200만 톤 전망**, **2012-2013년 대비 3% ↑**
 - **사료로 이용**하는 곡물은 두 기간 연속 선진국보다 **개발도상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**
- 현재 전망에 따르면, **2014년 기말 세계 곡물저장량**은 **11%를 회복**하여 **5억 6,900만 톤 기록할 가능성**이 있으며, 이는 **12년 간 최고 수준**
- **[2013-2014년 곡물의 세계무역]** **3억 600만 톤 전망**, 2012-2013년 수준

□ 기타 상품 예측

- **[2013년 세계 육류 생산]** **3억 820만 톤 전망**, **1.4% ↑**
- **[2012-2013년 세계 유지종자 생산]** 생산은 **현저하게 감소될 전망**

※ 자료: UN식량농업기구 FAO(<http://www.fao.org> 2013.06.13.)

4. 태국, 쌀 수매가격 20% 인하 결정 철회

□ 태국의 새로운 수매가격 도입 배경

- [쌀고수매가격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] 태국국립쌀위원회(Thailand's National Rice Committee)에 따르면 고수매가격정책으로 인한 2011/12 작물연도 손실액은 1,369억 바트(한화 5조 78억), 정부예산의 막대한 손실 발생
 - 태국정부, 2011/12작물연도에 쌀 4,000만 톤 수매, 약 6,000억 바트 소요
 - ※ 이는 정부 전체 지출의 25%

□ 태국정부, 쌀 수매가격 당분간 현상 유지

- [태국정부 쌀 수매가격 인하 결정] 지난 6.18일 막대한 재정적자 완화 및 2017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6.30일~9.15일까지 정부가 수매하는 쌀을 톤당 현재 15,000바트(한화 약 55만 원) → 12,000바트(한화 약 44만 원)로 20% 인하 결정
- [농민 거센 반발] 태국정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새로운 수매가격 적용 시행 첫날, 이전 가격(5,000바트) 현상 유지 결정

※ 자료: Reuters(2013.06.19.), The Wall Street Journal(2013.07.02.)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